

변화·혁신·실용 추구 ... 행복한 교육 실현

민선 6기 1년 <5>광주시·전남도 교육청

광주·전남교육에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린 지 5년이다. '진보의 가치'를 구축하거나 '실용적 진보'를 추구하는 차이는 있지만, 광주·전남 교육감 모두 공교육 강화와 변화·혁신을 통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의 실현'이 정책의 근간이다. 주민 직선 2기 1년, 광주·전남 교육행정 은 '혁신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혁신교육 강화'를 기치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교육 변화에 탄력을 받으면서 '혁신학교의 확대', 8시30분 강제등교 금지, '반편성고사 폐지' 등 교육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엔 교실문화 개선을 위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슬로건으로 수업문화 개선프로젝트인 '300교원 수업나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5일에는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어린이가 놀이의 주인임을 인정하고자 어린이 놀이현장을 선포하기도 했다.

장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대표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누리과정예산 문제 등 교육현안을 주도하고 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국가가 맡아야 할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을 완성하기 위한 사회적

시교육청, 반편성고사 폐지 등 교육혁신

복성중 이설 소통 부재 의회와 갈등도

도교육청, 독서토론열차 글로벌 체험

학교현장 장학·생활 지도 부실 지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직선 1기 4년동안 '소통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복성중학교 이설,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에 따른 갈등이 그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생 수 감소와 교육과정 애로 등을 이유로 복성중 이설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광주시의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됐으며 제동이 걸렸고,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은 광주시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만 야기한 채 결국 무산됐다.

◇**전남도교육청**=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농·어촌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 소외계층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차별받지 않으려면 '진보의 가치'보다는 '실용'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 교육감은 농어촌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에듀-버스(EDU-BUS) 사업을 시작했다. 통·폐합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하던 것을 농어촌 소규모학교까지

확대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순천·영암·장성·완도 등 4개 지역을 EDU-BUS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 4억 8000만원을 투자했다.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를 75개교로 확대하고,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도 3곳(장흥·장성·영광)에서 6곳(나주·영암·함평·강진·곡성·고흥)을 추가로 지정해 9곳으로 늘렸다.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시야를 트여줄 '글로벌 교육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상 무지개학교'와 '시베리아 독서토론열차학교'다. '시베리아 독서·토론열차학교'는 올해 처음 도입했다. 15박16일동안 광활한 시베리아 대평원을 기차로 횡단하면서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장 교육감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나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JTBC-리얼미티가 실시한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두 달 연속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또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고교 시험과목 2종 출제, 교사-제자 폭행 사건 등 학교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라 발생해 학교현장의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지정에 대해 전신행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장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낸 평가서에서 "무지개 학교 교육지구 지정은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다분히 인기에 영합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다"며 "무지개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지구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관광활성화 힘 합친다

호남권 관광진흥협 창립

민선 6기 첫 가시적 성과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조직을 구성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6년만에 가동된 호남권정책협의회가 1년만에 첫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전남도는 25일 "호남권 광역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주·전남·전북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가 26일 오전 11시 광주 감내중전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립총회에서는 3개 시·도 관광국장 과 유관기관·단체, 학계, 관광사업 종사

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위원 위촉과 협의회 규약 체결, 공동 협력사업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는 호남권 관광발전 파트너십 형성과 정보 교류, 협력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각 시·도 관광국장이 1년씩 윤번제로 회장을 맡으며, 시·도 관광국장, 관공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3개 시·도는 다음달부터 공동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월 중 공동 홍보물을 제작하고, 오는 10월 관광권커리언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개최하는 해외여행박람회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가해 공동 마케팅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호남고속철 모니터단' 발족

분야별 대응방안 모색

전남도는 지난 24일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역에 나타난 변화를 수시로 파악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모니터단'을 발족했다.

'호남고속철도 모니터단'은 전남도의 5개 시·군과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 교통·음식·숙박·의료 등 5개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발족과 함께 열린 첫 간담회에서 는 전남도와 시·군의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모니터단의 역할과 기능,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모니터단은 2017년 6월까지 2년 동안 운영되며, 분기 1회 전체 회의와, 도 관련부서 주관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미 수립해 시행 중인 50대 분야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명원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전남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어 전남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다"며 "이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모니터단을 내일 있게 운영, 분야별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점검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포스코 광양제철소 2554억 투자협약

차량용 아연 강판 라인 증설

전남도는 2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백운대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정현복 광양시장, 이영훈 포스코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554억원(고용인원 52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985년부터 30여 년간 5개의 고로를 갖추고 6230여명을 고용해 열연·냉연코일, 후판, 자동차용 도금강판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는 2147만t을 생산해 포스코 철강부문 매출의 30%인 15조원을 기록했으며 지금까지 누계 생산량 8억t을 달성했다.

포스코의 이번 투자는 최근 경기 침체

와 철강시장의 과잉 공급에 따른 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강한 차량용 철강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아연도금 강판은 신형 시장뿐 아니라 선진국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연비기준 상향, 환경과 안전 규제 강화에 따라 급증세가 예상되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 2017년까지 2554억원을 투자해 자동차용 고급 아연도금강판 라인을 증설하고 52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라인이 증설되면 연간 생산량은 380만t으로 15%가 늘고 이에 따른 연 매출은 4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평양 순안국제공항 제2청사 완공 ... 내달 1일 준공식

면세점·음식판매점 등 깔끔하고 세련

김정은, 리설주·김여정과 항공 시찰

북한이 최첨단 국제공항으로 건설한 평양 순안국제공항 제2청사가 공사를 마치고 오는 7월1일 준공식을 통해 문을 연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청사 개장에 앞서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을 전용기에 태우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하늘에서부터 꼼꼼하게 둘러봤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청사의 현대적 미감과 민족적 특성에 대한 감을 표시하고 신청사와 평양을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웅장 화려하게 일떠섰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훌륭히 완공된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김양건 당비서, 리재일·리병철 당 제1부부장, 조영원 당 부부장이 수행했다. 현지에서는 강기섭 민용항공총국장과 림광웅이 이들을 맞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용기를 타고 상공에서부터 공항



북한은 25일 노동신문을 통해 다음달 1일 준공식을 하는 평양 순안국제공항 제2청사의 모습을 공개했다. 공항 청사 전경. /연합뉴스

건물을 구경한 뒤 현대적 미감과 민족적 특성, 주체성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잘 시공했다며 대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날 노동신문이 공개한 공항 내부의 면세점, 잡지판매점, 외국 음식판매점, 옷가게 등의 사진에는 세련된 실내 장식과 깔끔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공항 내부도 넓적하고 각종 집기나 시설에도 최신 유행과 기술이 반영돼 있어 북한 당국이 '국제 기준'에 맞추고자 상당히 노력했음을 드러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히 당 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전하고 다음달 1일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국제선 전용 터미널로 설계한 신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기존 제1청사를 국내선 전용으로 전환, 백두산 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